

별수 있다 제13대 총여학생회 1학기 평가

일상정치국 평가

일상정치국의 사업들을 들여다보자면 먼저 여휴와 생리대자판기 증설, 이번 방학에 하는 기
활을 들 수 있다. 초기에는 범대 여학생회와 함께 기숙사 문제를 이야기해나가려 했으나 중
도 하차하고 말았다. 방학때 다시 원기를 회복하여 다시 문제제기해야하리라고 본다.

일상정치국을 맡고보니 할 일이 없는 듯 일상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다. 자주
학교에 나오지 않는 성향을 가진 일상정치국장으로서 지금까지의 일상정치국 활동이 꽤
나 미안하고 성의없는 답변만을 날리는 날림의 연속이라 자백하지 않을 수 없다. (에너르
기가 떨어지면 인간의 형상이 아니어서 말이쥬~)

일상정치국은 정말 부지런하고 야물딱스런 이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음엔 누굴까?
나처럼 무덤덤하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찻찻..'에는 사람들의 의중을 꿰뚫기가 어려운 지점
이 있다. 먼저 사업별로 평가하기 전에 게으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반성과 애정어린 꾸
지람이 있어야 할 듯 싶다. 사실 일을 할 때는 적재적소의 여부를 떠나서 자신의 최선을 보
이는 것이 기본 아니겠는가.

'무엇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생각만큼 간단하지도 만만치도 않은 일이다. 더군오.
그냥 막 부담스럽고 걱정되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두렵고...

첫째 여학생휴게실사업

지난 6월 늦게나마 여학생 휴게실의 환경개선에 주력하고자 하는 의지 표명
구체적인 일정과 치밀한 사업기획, 뜻심이 부족하여 지금은 하강 상태임.

정확한 상태를 말하자면 여학생 휴게실개선을 위한 여휴만만 프로젝트와 사이트를 만들었습
니다. 회원수는 아는사람 두루두루 포함하여 9명! 총여보다 많죠! 그간 여휴스티커와 여휴만
만을 함께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호화 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그리고 시험과 방학을 빙자
하여 휴~

지난 설문조사를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올리는 작업을 시작으로 이제 방학동안 여휴만만 프로젝
트를 펼칠 때라고 생각, 합니다.

중도의 경우는 분리된 수면공간을 확보하는 것, 보다 발전된 흡연실, 학관의 경우는 흡연공
간의 분리와 지저분한 여휴 개선(소파나 테이블) 논지당의 경우는 냉방과 시험기간의 경우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대와 공대 문과대도 그 시설개선에 있어 단순히 학생회를 찌르는 것보다 학생회와 함께
학생처에 요구하고 이에 대한 어느정도의 물적 투자가 총여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과대 학생회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고 또 총여의 이미지나 홍보에 있어서도 말이죠.

학생회비라는 것이 그렇지 않나요.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
가 다시 고민되는 군요. 학교에 어느정도를 요구해야 하는거죠? 이 부분에서 가장 고민스럽
습니다. 기본이 지금 이거라고 하면? ~ 나운경 선생님께 메일을 보내 자문을 구해보는 것
도 좋을 것 같아요. 총여와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말이죠, 적극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의견조율이 필요할 듯 하긴하지만.

그러나 학교의 전반적 외관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생리대 자판기 증설

생협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자판기 교체와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정확한 보고를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교체하면서 더 많은 곳에 증설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활

기지촌 활동에 대한 관심을 다시 환기시켜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여성주의자들 내부에서도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는것같습니다. 여성운동 이외의 기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다시 피시라도 걸어야 할까요?(일정등의정보제공)

동전에게 어제 듣기로 여성연구개발원인가하는 곳에서 성매매특별법관련 토론회를 가졌나 봅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발제를 하고 그 열기가 뜨거웠다고 하는데 이 자료집을 수요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기활 교양학교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양학교때 먼저 기활을 잤아왔던 이들이 경험담을 들려주는 자리를 마련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기활 교양학교 시작단계에서요. 관악의 자료를 참고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군요.

참 다르죠, 이론의 매매춘의 현실을 읽는 것과 그 안의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
일정을 늦게 잡고자 하나 얼른 준비해야겠죠?

그간의 간략하게 큰 사업들을 정리했습니다.

일상정치국이 잘 해나가야하리라 봅니다. 정말 중요하고 나름대로 재미도 있는 곳인데말이죠,

코디모임

캠프

전체 평가

-총여와 예감

총여가 1학기동안 하고자 했던 행사들을 잘 치러냈고 다 의외의 성공을 거두는 뿌듯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 안에서 총여는 굉장히 빠센 작업들을 해야했죠. 기획과 실무,사이사이 장시간의 회의. 총여학생회라는 체계도 낫설었고 그렇게 기획을 하고 실무를 맡고, 행사의 진행 상황들을 체크하고 동시에 일상사업들을 처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건망증이 날로 심해져가는 예감으로선 부러웠습니다.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고 읽어낸다는 것이 실로 놀라웠습니다.

주체가 된다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큰 안목을 필요로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우선 총여의 집부로서 여성주의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자신이 아직도 없습니다.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생각하면 먼저 눈을 감았겠죠. 누구의 의견이 다 맞다가 아니라 그런 면에 있어 다른 집부들보다는 부족한 거죠.

자신감도 끈질긴 의지도 부족하고.. 우선 에너지가 없어서 자꾸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총여 행사중에서 주체로 나서거나 앞서 이끈다는 것이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그 담의 문제들 또한 여기서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총여와 일상정치국

일상정치국은 총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총여가 일상정치국의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 가장 크게 비판받을 거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앞서 일상정치국의 일을 소홀히 한 점은 후회된다. 총여내에서도 일상정치국과 관련된 문제들을 깊이 다루지 않은 원인이 여기서 비롯된다고 보는데.. 문제들이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다. 일상적인 문제제기들은 즉각 처리하도록 노력해야겠다.

-집부들과 예감

모두들 개성있고 좋은 친구들이라 생각된다. 근데 친해지는 건 참 복합적인 일인 것 같다. 일과 친구. 우리 분명 학생회를 통해 모인 이들이고 그래서인지 일이 중심이 되는 구조다. 서로를 알아가기엔 어쩔 일을 하는 측면에서 보여지는 모습들만으로는 부족한 듯. 아무래도 일처리에선 감정적인 측면보다 이성적인 부분이 우선하니까. 닮아가지도 하지만 가끔 느끼는 서로의 그 간극을 메우기에 선뜻 나서지지 않는다.

얘기해보고 싶은 우리의 문제들

그 간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학기 계획

간단

- ✓ - 기활교양학교와 기활 무사히 잘 하기
- ✓ - 수영 수업 여성전용 수업개설 요구 26년정도 ~~이제까지~~ 요구하는 게 좋을 듯.
- 여휴만만 멋지게 하기
- ~~여성제~~
- 선가
- 겨울 기활
- 겨울 컴퓨터 강좌를 개설해봄직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간 계획
내용	15	16	17	18 수영수업 의견수렴	19 기활교양학 교자료집기 회고토론회	20 여휴만만모 임-앞으로 의 계획	21 여휴만만모 임-다각적 모색	기활 교양학 교준비/여휴 만만모임-설 문조사정리. 방학모색
내용	22	23 여휴-학생 회와 연락	24 여휴-여학 생처,학생처 면담 준비	25 기활교양학 교자료집 정리	26	27 여휴-학교 측,학생회만 나기	28	기활 교양학 교준비/여휴 만만-학교측 과의면담준 비 학생회와
	29	30	31	1	2	3 한판(예정)	4 한판	학생회와 작 업구상
	5 한판	6	7	8	9	10	11	기활교양학 교 /여휴-작 업착수
	12	13	14	15	16	17	18	기활예정
내용	19	20	21	22	23	24	25	기활평가/여 휴 개선작업
내용	26	27	28	29	30	31	1	개강준비/여 성제 개최초 읽기

- 여휴만만

여휴는 먼저 학교측과의 면담을 통해 안정적인 시설개선과 관리, 이에 대한 개선의 촉구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학생들에 대한 복지의 절실함을 전반적인 학교 환경의 문제와 함께 이야기해나가야 하리라 본다. 단대 여의치 않은 여휴또한 그 시설의 지원과 대책마련에 있어 함께하기를 학생회와 함께 촉구해야겠다.

어떻게 바꿀것인가? 여휴라는 본 기능에 충실토록 하는 것이 기본. 또한 그 공간의 특성에 맞게 여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간의 분리나 필요한 가구들을 배치토록한다.

이슈를 터트리는 것도 중요하리라 본다.

여휴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측의 분명한 대답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여휴만만 내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율해가고자 한다.

새로 여는 여휴를 기념하여 멋진 공연을 여성제때 같이 하는 것도 좋겠다.

-기활

기활을 가기 전에 기활 교양학교를 연대에서 따로 준비하고자 한다. 3일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간단한 소개를 나누는 자리, 경험담듣기, 한국 매매춘의 현실과 문제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성매매특별법, 청소년 성매매등의 문제를 다뤄보고자 한다. 세미나는 좀더 여유를 가지고 2~3회 진행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좋겠다.

- 컴퓨터 강좌를 개설해보고 싶다.

이건 학술국에서 해야하나?

먼저 일찍 준비해서 강사 섭외도 알아보고 커리큘럼도 짜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이 외에 가로등 개선 확인작업과 화장실의 비상벨 설치등도 계획하고자 한다.